

■ 2026 새해설계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기술혁신으로 위기 돌파… 지역경제 도약 이끈다”

“기술혁신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부강하고 행복한 광주·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은 새해를 맞아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과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붉은 말이 상징하는 강인한 추진력과 진취성처럼, 2026년은 이노비즈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국내외 경제 환경은 기업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았다. 저성장과 고환율, 기조가 이어졌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영 여건 전반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노비즈기업들은 변화와 도전을 면치지 않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중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

이노비즈기업 중심 연구·제조 혁신 체계 강화

저성장·고환율 속 기술 경쟁력으로 돌파구 마련

했다.

2026년 역시 경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기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경제 또한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유럽과 중국의 성장세둔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질서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한울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는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김용구 회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겠

지만, 절저히 준비한 이노비즈기업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위기일수록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변화점이라 전망했다. 최근 광주·전남은 AI 모빌리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반도체 설계 AI 사관학교,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미래 핵심 인프라를 잇달아 유치하며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김 회장은 “광주·전남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



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노비즈협회는 2026년을 제조혁신을 본격화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회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등 주요 정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제조 기반 R&D 성과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부터 실증, 인증, 초기 고객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김 회장은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연결 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중소기업은 결코 규모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다”며 “이노비즈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조와 혁신이라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 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강소기업이기에 더욱 빛이 난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중심에 둔 혁신이야말로 이노비즈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 이노비즈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부강하고 행복한 광주·전남을 만드는 데 선봉에 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인들에게 새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유비무환,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며 “병오년 새해의 계획을 잘 세우고 힘차게 추진해 희망이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2026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신세계, 개성가득 오덴세X핀카 콜라보 ‘눈길’ (주)광주신세계가 북유럽풍 그릇 브랜드 ‘오덴세’와 홈 패브릭 브랜드 ‘핀카’가 콜라보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본관 8층 ‘오덴세’ 매장에서는 오덴세X핀카 ‘Find Your Pattern’이라는 테마로 세라믹과 패브릭이라는 서로 다른 소재가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에서 출발한 다양한 테이블웨어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레트로한 컬러와 패턴을 담아 나만의 조합과 감각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고 나다운 무늬와 조합으로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전, 인사이동기 안전 공백 막는다

안전경영 특별 교육…증점사항·법령 등 안내

한국전력공사는 인사이동 시기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

에 걸쳐 전사 사업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특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소장 중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신임 사업소장의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과 직

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활용, 전사 사업소장이 100% 참석해 안

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유했다.

교육 과정은 올해 안전관리 추진 방향, 사업소장의 현장 안전관리 증점 사항, 안전 관련 법령 이해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올해 발주공사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작업 전에는 현장 중심의 원포인트 사전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협력회사까지 참여하는 투트랙 현장 점검 안전망을 구축하며 작업 후에도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

왔다. 주요 저서로는 ‘나인 레버’, ‘나도 성공하고 싶다’, ‘설계사 혁신전략’ 등이 있다. 강연은 ‘지금 세계는? 세상의 트렌드 읽기’를 시작으로 감성리더십의 필요성, 경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인간과 뇌에 대한 이해, 이모션노믹스, 관계 중심의 소통 기술, 감성리더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학습의 기술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감성경영·소통리더십’ 포럼

23일 휴리데이인 광주호텔서 조영근 박사 초청 강연

광주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감성경영과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포럼을 연다.

광주경총은 오는 23일 오전 휴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조영근 박사(사진)를 초청해 ‘감성경영과 소통리더십’을 주제로 제1710회 금요조찬 포럼 특

강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하이터치경영연구원 원장이자 유튜브 채널 ‘조영근TV’를 운영 중인 조영근 박사가 연사로 나선다.

조 박사는 한국생산성본부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환경영역연구원장 역임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강연을 진행해

워터린사워슬루션은 이렇게 다릅니다

- 초미세녹물까지 차단하는 고성능필터
- 사워후 잔류하는 잔수를 저동배출
- 휴대용, 여행용 대용량 필터유닛
- 자유로운 수압조절 및 절수기능

동행 지역상공인

Water linn

보다 더 나은 다음

워터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처럼 당신의 일상에 깨끗하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399-18, (주)지엔비슬루션 · 전화 : 062-716-0999 · 팩스 : 062-716-0998 · 메일 : water-linn@naver.com